

“고수온 피해 막아라”...여수시·고흥군 대응 총력전

시, 액화산소 용기 충전·해상운반 지원
군, 포획금지·어구제한 등 보호조치
어가 경영안정 위한 치어 긴급 방류도

여수시와 고흥군이 양식 어가들의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여수시와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연안 해역의 고수온 경보와 주의보가 잇따르면서 이상 수온 대응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수시는 이상수온 대응을 위해 국비 1억 1천40만원, 시비 1천400만원 등 총 1억 2천400만원을 추가 확보, 총 3억 4천77만원을 투입한다.

여수 해역은 지난달 29일 여자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고 여수전역으로 주의보가 확대됐다. 고수온은 용존산소 감소를 유발해 양식어류의 폐사 위험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 어가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추가 예산으로 액화산소 용기 충전 물량과 해상 운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우선 액화산소 충전 물량을 기존 880통에서 750통을 추가해 총 1,630통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액화산소 해상 운반 지원 횟수 확대를 병행해 현장 공급을 신속히 하고 양식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액화산소는 고수온으로 감소한 용존산소를 보완해 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다.



고흥군이 도양읍 해역에 조피볼락(우럭) 치어 긴급 방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또 지난달 23일부터 양식어류의 생존과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조피볼락(우럭) 치어 긴급 방

류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8어가에서 총 217만 마리를 방류 완료했으며 앞으로 11어가에서 91만 마리를 추가 방류해 총 39어가, 308만 마리 방류를 마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한 고수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추가 확보했다”며 “액화산소 용기 충전과 해상 운반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긴급 대응책을 지속 추진해 양식업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도 여름철 지속되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양읍 해역에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양식어류(조피볼락) 40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군은 지역 양식 어가의 수요 조사를 통해 도양읍 소록지선(3개 어가 24만 마리), 도양읍 화도지선(2개 어가 16만 마리) 등 총 5개 어가로부터 조피볼락 40만 마리에 대해 신청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후 건강한 개체들로 긴급 방류했다. 방류 후 관할 수협과 어업인 홍보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방류 해역 내 포획금지와 어구 제한 등 보호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수온 특보 상황에 따라 양식 어가에서는 사전에 사육밀도 조절과 먹이 중단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 기자·박현진 기자

“특혜 원천 차단”...화순군, 청렴 설계 의무화 시행

5천만원 이상 사업 모니터링
화순군은 12일 “청렴 설계 반영 의무화 제도”(청렴 설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직원 및 민원인 설문조사, 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부패취약 분야를 ‘특혜 제공’ 분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렴 리스크를 사전 식별·관리하기 위한 신규 시책으

로 청렴 설계 제도를 도입했다. 연간 예산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청렴영향평가를 통해 청렴리스크 등급을 분류하고, 위험도에 따라 청렴 이행계획 수립, 자체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함은 물론 청렴 설계 책임자를 지정해 사업 진행에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김승오 화순군 기획감사실장은 “8월 시범운영을 통해 청렴 설계 반영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군민 신뢰와 행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 청렴 관련 신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수가 들려주는 청렴 이야기’로 조직 전반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이해충돌 자가진단 캠페인, 직위별 맞춤형 청렴교육, 특혜 제공 취약분야(회계·보조금·민간위탁 등) 특정감사 등을 통해 주로 예방에 목적을 둔 감사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재난 복구 전방위 지원 요청

행안부 방문 예방시설 확충 등 건의

정철원 담양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재난 복구와 예방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정철원 군수는 최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복구지원국 등 관계 부서를 차례로 만나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설명하며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 군수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도로·제방 등 전역에서 큰 피해를 입어 이미 현장

중심의 긴급 복구를 진행 중이나, 복구의 속도와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면담에서 정 군수는 재난 예방 시설 확충과 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건의했다. 정 군수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피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 전반에 지원 요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 요청이 조속히 반영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마을스테이 실랑계 로컬 투어’ 참가자들이 지난 10일 선암사를 방문해 관광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실랑계 로컬 투어’ 호응

국내·외 인플루언서 20명 참여
마을스테이서 자연·문화 체험

순천에서 머물며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실랑계 로컬 투어’가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체험은 지난 10~12일 2박3일간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내 여행 인플루언서 10명과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 10명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순천의 4개 권역 마을스테이에 머물며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체험하

고, 치유도시 순천만의 여유와 회복의 가치를 만끽했다. 프로그램은 ‘먹고 머물며 치유하라(Eat, Stay, and Heal)’를 주제로, 온전한 쉼과 회복을 담은 3부 구성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달콤한 게이트’를 콘셉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와 순천만 습지를 탐방하며 참가자 간 교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우리 함께 건너가자’라는 주제로 ▲나무 도마 만들기 ▲사운드 워킹 ▲죽육·명상 ▲티톡스(Tea-tox) ▲명리조향 ▲맥주 팩토리 투어 등 6개 로컬 체험이 권역별로 열렸

으며, 저녁에는 모두 모여 수제 맥주와 함께 소감을 나눴다. 셋째 날에는 ‘함께 쉬어요’를 주제로 마을 산책과 명상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참가 인플루언서들은 블로그 이웃 1천명 이상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천명 이상을 보유한 여행·라이프스타일 분야 창작자들로, 체험 종료 후 각자의 SNS를 통해 순천의 생생한 치유관광 이야기를 전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실랑계 로컬 투어는 단순 관광이 아니라 마을에 머물며 주민과 교감하고 치유도시 순천의 진정한 쉼의 가치를 발견하는 새로운 여행 방식”이라며 “참가자들이 느낀 순천의 매력이 국내외에 널리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광양읍 2호 해바라기 정원’ 오늘 개장

24일까지...첫날 기념행사도

광양읍 2호 해바라기 정원(사진)이 13일 개장한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읍 2호 해바라기 정원은 지역 18개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동천변 일원에 조성했다. 정원은 광양경찰서 북측 삼각지 일원에 위치하며 개장 첫날인 13일 오후 5시에는 ‘하나된 마음, 꽃피운 광양읍’을 슬

로건으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떡 절단식, 단체 기념촬영, 희망길 걷기순으로 진행된다. 광양읍사무소는 해바라기 개화 시기에 맞춰 탐방객 안전과 식재지 보전을 위해 동선에 양생포를 설치하고 ‘해바라기 희망길’ 걷기 코스를 마련했다. 또 가족과 연인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스팟도 준비하고 있다. 개장 기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복 사진 콘테스트’도 함

게 진행된다. 해바라기 정원을 배경으로 한 본인·가족·친구의 사진을 촬영해 24일까지 광양읍사무소 산업팀 이메일(haebal1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1등 1명에게 5만원, 2등 2명에게 3만원, 3등 4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각각 수여한다. 입선자 3명에게는 매달이 배게, 키링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김미란 광양읍장은 “공한지였던 공간을 지역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가꾸 노란 희망을 피웠다”며 “관광객들은 운동화를 신고 양산을 준비해 24일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정원 산책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에서 ‘한 달 여행하기’ 어때요”

25일까지 모집...최대 10만원 지원
SNS 활용 관광자원 홍보 가점 부여

곡성군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전남 한 달 여행하기-곡성편’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광주시 외 지역 거주 여행자가 곡성을 중심으로 전남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실질적인 여행 경비를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 중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통해 곡성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

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여행 기간은 8월부터 11월 사이 7~10일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 전역을 여행할 수 있으나, 곡성군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곡성에서 진행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에는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SNS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필수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lady511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의 자연과 문화, 일상의 여유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지역에 머물며 곡성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성 축령산 편백숲’ 숲길 한 눈에

군,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장성군은 12일 “축령산 편백숲 홍보 리플릿을 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숲길 노선을 한층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테마별 숲길 추천코스 ▲편백숙소 및 힐링카페 ▲지역 맛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명소 등 여행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3차원 입체 형식으로 제작해 주요 시설이나 지형 등이 한눈에 들어와 축령산 등산 시 활용하기 좋다. 장성군은 해당 리플릿을 국립장성숲체원,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 장성공영버스터미널, 음식점, 카페 등 외부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장소에 비치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새로 제작한 홍보 리플릿이 장성 축령산 여행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